

[경제]

주택대출 이자 압박 '위험수위'

은행들 CD금리 이어 가산금리 일제히 올려

농협·하나·외환은행 등 0.02%P 씩 상승

주택대출잔액 13개월째 증가 가계이자 부담 갈수록 커져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시중금리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중은행이 가산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주택대출 금리가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주택대출 잔액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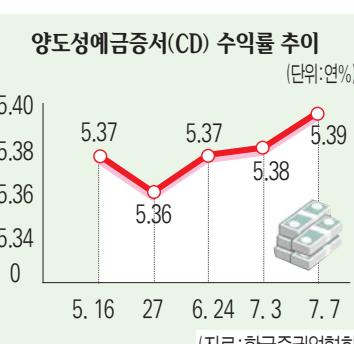
◇ 농협 주택대출 가산금리 인상 =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 최근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의 최저 가산금리를 종전보다 연 0.02%포인트 인상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며 최저 가산금리는 신용도 우수 고객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농협의 주택대출

최저금리는 연 6.14%로 지난 주초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가산금리 인상 분야에 기준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상승분까지 반영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시중금리인 CD금리의 상승은 모든 대출자에게 적용되며 가산 금리 인상은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된다.

◇ 기준금리 상승세 지속…이자 부담 기증 = 기준금리인 CD금리도 최근 오름세가 강해져 서민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CD금리는 7일 현재 전날보다 0.01%포인트 오른 5.39%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달 23일 5.36%에서 2주새 0.03%포인트 상승하면서 4월15일 이후 석 달여 만에 최고



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주택대출 고정금리는 8일 현재 7.79~9.09%로 지난 주초보다 0.39%포인트 급등하면서 최고금리가 9%를 넘어섰다. 4월 말에 비해서는 정책금리의 다섯 차례 인상과 맞먹는 1.25%포인트나 올랐다.

기업은행은 7.21~8.67%로 지난 주초보다 0.34%포인트 급등했으며 국민은행은 7.46~8.96%로 0.32%포인트 상승했다.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은 각각 0.21%포인트와 0.29%포인트 오른 7.76~8.86%와 7.71~8.41%를 기록했다.

한편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주택대출금리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은행권의 은행채와 CD 발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권 주택대출 잔액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

밀가루 관세

대폭 인하 추진

정부 식료품 가격 안정위해

정부가 식료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밀가루에 붙는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행 4.2% 수준인 밀가루 관세율을 대폭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할당관세 적용으로 관세가 없는 밀과 같이 밀가루의 관세도 거의 0%에 가까운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통해 밀가루를 직접 수입해 싸게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육식업체나 식품업체가 개별적으로 수입하면 물량 확보나 가격 협상력 등에서 모두 불리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7월 t당 228달러 수준이던 국제 밀 가격은 지난 3월 424달러까지 급등한 뒤 5월 현재 305달러로 다소 낮아진 상태다.

그러나 국내 제분업체의 밀가루 공장도 가격(중력 1등)은 작년 7월 595원에서 지난 5월 980원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밀가루를 재료로 쓰는 빵과 리본, 스낵, 자장면 가격도 1년 전과 비교해 12~16% 뛴다.

/연합뉴스



현대차 베르나 고객 사은행사

현대차는 최근 출시한 2009년형 베르나와 클릭을 구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

/연합뉴스

대차는 베르나 구매 고객 중 100명에게 유이용 카시트 20개와 차량용 소화기, 점프 케이블 등 차량 안전용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반기 車 업체 수출

267억달러 사상 최고

일반기계류 193억달러 2위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 관련업체들의 수출금액이 267억달러로 반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품목별 수출액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8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국내 업체들의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267억2천여만달러로 작년 상반기 보다 9.2%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업체의 역대 반기 수출액 중 최고 액수이며 올 상반기 품목별 수출실적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치이다.

고유가에도 대형차 판매 '꿋꿋' 올들어 8만여대 7.7% 늘어

올해 들어 유가가 고공 행진을 계속했지만 '기름많이 먹는' 대형 승용차는 판매량이 꿋꿋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승용차는 올해 상반기 8만3천769대가 팔려 작년 동기에 비해 7.7% 늘어났다.

올해 대형차 시장은 고유가로 인해 시장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대차 제네시스와 쌍용차 체어맨 W 등 신차 출시에 함께 대형차를 선호하는 고객이 증가해 결국 판매량이 늘어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에 중형 승용차도 쏘나타와 토스카 신차 출시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12.9% 증가한 13만2천444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한국 경제 투자 여력

환란 이후 최저 수준

한은, 작년 10조9천억

한국 경제의 투자여력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8일 내놓은 '우리경제의 투자여력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액에서 투자액을 뺀 '저축-투자 갭'은 작년에 10조9천억원으로 전년의 11조6천억원에 비해 줄었다.

저축-투자 갭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0~1997년에는 연평균 -3조7천억원이었다. 따라서 해외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해야 했다. 환란 후에는 플러스로 전환돼 1998년에는 59조2천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4년 34조8천억원, 2005년 21조6천억원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개인부문의 저축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개인부문의 저축-투자 갭은 1990~1997년에 연평균 21조6천억원이었으나 2001~2006년 4조3천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개인의 저분 가능 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기준으로 1990~1997년 14.7%에서 2000~2007년 5.1%로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주성진케미칼	임원비서직(여성)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0	062-943-8115
금호생명	[광주 서구] 금호생명 순수인바운드 21기 상담직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7/10	02-518-3250
광주대학교	광주대학교 산업인력교육원 직원	대졸/경력무관	2000~2200	07/11	062-670-2584
주유닉스코리아	2D 디자이너-경력자	초대졸/경력3년	1800~2000	07/12	062-514-9652
대호	티아이 금형 정밀작업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2	011-9607-2186
성수기공	경리 및 사무업무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07/14	062-973-1341
살롬산업	생산관리, 품질관리, 식품기술사, 경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4	062-652-2701
메리즈주	[웨딩분야/여행분야] 매니저 및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14	062-222-9111
이케이엔피워크	[주5일] 목포현대상호증공업 설계보조인원	초대졸/경력무관	2200~2400	07/15	062-228-5437
엠파이어관광호텔	엠파이어관광호텔 프론트 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15	062-962-2000
주굿티임프리자	이동통신 기기판매 및 CS업무, 이웃비운영TM, 회계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5	062-384-3010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로봇연구소 연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6	062-530-0269
주새론	전자제어계측 기술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6	062-956-7774

(광주집코리아 512-6210 제공)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그칠 줄 모르는 매도 행진에 미국발 신용경색 우려까지 겹치면서 급락세를 보인 8일 오후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관계자들이 시세판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날보다 46.25포인트(2.93%) 내린 1,533.47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고유가·경기둔화·신용경색 줄줄이 악재

코스피 1500도 무너지나

증시가 맥없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코스피 1,500마저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단기간에 많이 빠져 가격 매력이 높아졌지만 국제유가 상승과 경기둔화, 신용경색 등의 악재가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아 투자심리 위축으로 추가하락 가능성성이 큰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 "설부를 저가 매수 자체, 관망 필요" = 증시가 바닥을 모을 정도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성급하게 저가매수에 나섰다는 손실을 키울 수 있으므로 당분간 관망하며 바닥을 확인할 필요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증시가 고유가와 경기둔화 등으로 바닥을 확인하더라도 바로 반등세로 나아가지 못하고 흥보장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앞으로 매수기회는 많이 있을 전망이기 때문에 서둘러 주식을 매수할 필요는 분석이다.

굿모닝신한증권 정의서 투자전략부문은 "현재 투자심리로 볼 때 저점인 1,500선 붕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가매수보다는 관망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다만 투자성향에 따라 5% 정도 손실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면 지금 매수에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외국인 22일간 6조3천억 팔았다

외국인의 셀 코리아가 22일째 지속하면서 누적 순매도 액수가 6조3천억원보다 적지만, 10년 전 1998년 6월 1일부터 1998년 6월 26일까지 21일간 연속 순매도한 3천469억원에 비해 17배에 달하는 액수다.

외국인은 순매도세가 시작된 지난달 9일부터 이달까지 22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2천866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는 올해 1월 3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의 21

일간 연속 순매도 금액 8조6천144억원보다 적지만, 10년 전 1998년 6월 1일부터 1998년 6월 26일까지 21일간 연속 순매도한 3천469억원에 비해 17배에 달하는 액수다.

외국인은 순매도세가 시작된 지난달 9일부터 이달까지 22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2천866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는 올해 1월 3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의 21

내국인 해외투자 23억달러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뚝'

글로벌 증시 침체 여파로 상반기 개인과 일반기업들의 외화증권 직접투자 규모가 작년 상반기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8일 증권에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개인투자자와 일반 법인들이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 외화증권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23억2천700만달러로 작년 상반기의 42억4천200만달러에 비해 4